（朝鮮日報記事（ハングル-1991.08.31

「朝鮮日B 3/2」

蘇의 앞날과 中·北韓에 미치는 영향

〃蘇,英聯邦型 동맹체 가능성〃

쿠데타실패、공산당해체로 이어지던 소련정세가 점차 안정을 찾고있다。장차 연방제는 어떻게될것인가、공산당없는 소련의 실력자는 누구일까、사회주의 本家의 집권당해체가 주변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등에 관심이 쏠리고있다。동경외국어대학 해외事情연구소소장 나카지마(中嶋嶺雄)교수를 만나 소련의 향방과 중국·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았다。나카지마교수는소련과 중국정세분석에 정통하고、소련·동구의 脫사회주의화、脫공산화를 예측했던 국제정치 전문가이다。〈편집자注〉

東京外大 해외사정 연구소장
나카지마 교수
인터뷰

―공산당해체 이후 소련연방제는 더욱 흔들리고있다。연방제는 결국 어떻게 될것이라고 보는가。

『장래는 해체될수밖에 없다。쿠데타 실패후 발트3국은 이미 연방에서 이탈했다고 보아야하며、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탈조짐을 강하게 표시하고있다。주권과 徵稅權 외교권이 모두공화국정부에위임되고있으므로 결국 영국연방과 엇비슷하게 느슨한 동맹체로 변질될 것이다。경제협력체같은 헐렁한 연방이될지도 모른다。』

몇개그룹 분리 안돼

―연방정부들끼리 삼삼오오 몇개그룹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은。

『이슬람계가 많은 우즈베크와 카자흐나 소수민족이 많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등이 그룹을 지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이 함께 그룹을 만들면 정말 엄청나게 강해져 다른 연방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국제일본문화센터의 소련전문가 기무라(木村汎)교수는 최근 옐친씨를 1이라면、고르바초프대통령은 0·5이다、따라서 소련이「1·5체제」라고 권력이동현상을 재미있게 설명했다。두 권력자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리라고 예상하는가。

『기무라교수는 친구이지만、나는 그와 견해가 다르다。그는 쿠데타직후 고르바초프가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나는 여전히 고르바초프의 리더십을 무시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옐친은 장난꾸러기 아이가 아무 변화없이 그대로 어른이 된 사람같다。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당관료출신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해온 주인공이다。그는 연방제가 완전히 해체될때까지 소련지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지금은 옐친이 대중의 영웅이 [illegible]에게도 고르바초프가 필요하다。』

―거의 같은 파워를 가지고 소련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얘기인가。

〃한국 野지도자 비슷〃

『그렇다。작년에 옐친이 일본에 왔을때 만나보았지만、그는 한국의 어느 야당지도자와 비슷한 인물이다。연설도 잘하고 영웅특유의 카리스마적인 면이 있는 반면、선동정치가적인 면도 있다。민중정치가랄까、포퓰리스트랄까。그러나 고르바초프에게 있는 냉정함은 그에게는 없다。정치가 요동칠때는 그가 영웅이 될수있지만、안정되면 더이상 영웅이 될지는 미지수다。한국이 그야당지도자에게 한국정치를 몽땅 맡기기에 불안한 면이 있듯이、옐친을 톱(최고지도자)에 올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옐친·고르비 〃車의 두바퀴〃

―그렇다면 두 지도자간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으로 보는가。

『이제 두 사람은 달리는 자동차의 두바퀴같은 사이다。고르바초프는 등산으로 비유하면、중간중간 쉬기도하고 왼쪽 오른쪽 살펴가며 산을 오르고 있다。옐친은 정상을 향해 [illegible] 치닫는 타입이다。스타일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소련의 위기상황에 공동대처해 싸웠고、앞으로도 서로의존하며 지내야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소련보수파가 다시 들고 일어나 개혁과 싸울 가능성은。

『없다고、본다。큰 승부는 이미 끝났다。5월 장마비처럼 간간이 보수파들이 저항할 여지는 있지만、대세는 기울었다。공산당은 소련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사회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지금부터는 개혁파가 좀더 개혁을 하느냐、못하느냐가 문제다。』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먼저 軍産복합체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고、게을러진 소련노동자들에게 소비재와 생산재를 만들게 하지않으면 안된다。旧공산당간부등 기존세력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야한다。레닌동상을 철거하기는 쉬워도 공장을 들리기는 어렵다。연방들이 제각각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경제개혁은 금세기 최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中国, 97년 홍콩반환때 붕괴위기
北韓 반체제 운동 가능성은 희박

「蘇東波·南風」영향

―소련사태가 중국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것으로 전망하는가。

『중국은 한마디로 충격 그자체였다。쿠데타 다음날 인민일보는 쿠데타 주동인물들을 일일이 특별소개、쿠데타세력을 승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그러나 중국은 우선 민족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다。터키族들은 소련카자흐와 중국新疆에서 동시에 저항운동을 진행중이고 [illegible] 몽골도 서구화되고 있으며、대만은 대륙에서 완전히 이탈할지 모른다。더욱 중요한것은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무너졌다 게다가 鄧小平은 올해87세로 아무것도 하기힘든 상황이 되어가고있다。지도자그룹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移行期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중국에서는 소련동구사태의 여파를 송나라 시인 蘇東坡의 이름을 빌려 蘇東波라고 부르고、대만과 홍콩에서 밀어닥치는 서구바람은 南風이라고 한다。蘇東波와 南風의 영향으로 오는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기를 전후로 중국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화운동 안멈춰

―중국내 민주화운동이 격화될 것이란 말인가。

『멈춰질수는 없다。선거도 없고、언론자유도 없는 공산당 1당독재는 언제고 문제가 되지않을수 없다。집권자는 더욱 내부를 단속하겠지만、제2、제3의 천안문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북한은。

『20세기가「혁명의 시대」라고 불리었으나、지금은 과거의 혁명을 뒤엎는 反혁명시대이다。사회주의혁명이 유럽에서 시작돼 소련과 중국을 거쳐 북한、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내려갔듯이、동구와 소련의 反혁명바람은 북한에 심각한 충격을 줄것이다。다만 북한은 金日成주석-金正日서기로 이어지는 유교적인 親子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있고、2천만국민이 외부와 차단되어있는 신앙종교집단같은 상황이다。마치 제국주의시대의 일본이나、중국의 문화혁명기와 매우 닮았다。어쩌면 중국이 무너진후、가장 최후까지 남을 사회주의국가일지도 모른다。』

통일까진 10년 걸릴듯

―북한내 반체제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권력이양과정에서 반체제운동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그러나 작년에 평양에가서 체감한 바로는 북한지도부에는 중국의 趙紫陽과 같은 사람이 없다。지도부가 분열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표면적으로는 金주석이 권좌에 있는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의 통일은 [illegible]가。

『글쎄、북한이 민주화가능성이 있으면 몰라도、북한이독자적인 생존방법을 유지하는한 당분간 통일은…10년정도는 과도기가 아닐까…적어도 금세기말까지는 걸린다고 봐야한다。』

【東京―宋熙永특파원】

聞外聞

〃盧-金 유엔회담없을것〃

◇…盧泰愚대통령의 유엔방문기간중 盧대통령과金大中신민당총재의 단독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30일『盧대통령의 뉴욕滯在일정이 워낙 빠듯해 金신민총재와는 물론、金泳三民自党대표최고위원과의 단독 면담자리도 만들기 어렵게 됐다』고 밝히고『설혹 시간이 난다하더라도 불필요한 의혹이나 사고、정국의 안정구도에 해가될 일을 만들 이유가 어디있겠느냐』고 반문。

따라서 盧대통령이 뉴욕에서 金대표와 金총재를 공식 접촉할기회는 유엔연설직후에 있을 경축대표단과의 오찬 및 각국 대표단초청 리셉션등 두차례가 되는데、당국자는 그러나『盧대통령이 예우상 金대표와 金총재 두사람을 함께 조찬 또는 만찬에 초대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언급。

民自 市·道의원 연수시작

◇…지방의원들의 연이은 非理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民自党은 30일 可樂洞중앙정치교육원에서 9일간 일정으로 市·道의원 합숙교육에 돌입。

전국 5백64명 市·道의원을 4개 圈域으로 나눠 1박2일간씩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예산심의와 회의진행법등 강의를 듣고「시도의원 윤리강령」도 채택하는등 나름대로 自淨의지를 과시。

이날 개강식에서 金潤煥사무총장은 金紀培서울시지부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정치불신이 중앙정치에서 연유하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의 逆기능을 재현하거나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

이어「倫理특강」에 나선 南載熙국회윤리위원장내정자는「地自制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선거만 내년에 실시하고「기초」는 4년뒤로 미루자」라는 견해를 피력。

〃百일되니 적응력 생긴것 같다〃 鄭총리

종교적 신앙심으로 극복

◇…鄭元植총리는 30일 취임 백일을맞아 출입기자단과 함께 오찬겸 간담회를 갖고 姜慶大군사건이후 자신이 취임초 겪었던 外大사건등을 떠올리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

鄭총리는『석달남짓한 기간동안 많은 사건과 시련을 겪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웠지만 종교적 신앙심으로 이겨냈다』며『선조들이 유아사망률이 높을 당시、면역성이 생기고 생존가능성이 많아진 출생후 백일을 축하하듯 이제 나자신도 어려운 속에 적응력이 생겨난 것 같다』고 취임백일을 음미。

야권통합 3차례 접촉

◇…金大中신민당총재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통합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최근 민주당측사람들과 3차례 비밀접촉을 가졌다고 공개하면서、민주당측이 신민당의 통합의지와 내각제개헌반대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

金총재는 전날 민주당의 李哲 盧武鉉의원 張基旭前의원과 만난자리에서 공동대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순수집단지도체제에 의한 통합을 강조했다는 것。

記者手帖

한심한「根絶策」

지방의회의원들의 각종 非理사건이 잇따르자 与野가 대응책마련에 분주하다。民自党은 29일 党紀委를 열어 그간 瀆職 또는 非行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된 20명의 지방의원중 7명을 제명조치했다。신민당도 30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民自、신민 양당은 이같은 응분의 조치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막기위한 나름의「처방전」도 내놓았다。

신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도 歲費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며、民自党은「市-道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위반할때 벌칙을 가할수있는 입법조치를 진행중이다。뒤늦긴하지만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자체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그러나 非理근절책이라는 걸 보면 本末이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우선 지방의원들도「有給職」으로 하자는 신민당주장은 脈을 잘못짚은 것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지방의원 歲費지급論은 순수한 지방의회활성화 방안으로 제기될 때 이론상 일리가 있는 것이지、지방의원의 근본적 資質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비리근절책으론 맞지 않는 까닭이다。

신민당은「歲費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청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지만、그런 논리가 부녀를 폭행-강간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致富를 일삼아온「파렴치범」들에게까지 해당될 수는 없는 것이다。이번 기회에 日本이나 美LA市의회처럼 歲費를 줘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높이자는 주장 역시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英国式「무보수 명예직」제도를 택했으면 한번은 제대로 시행해보는 것이 옳고、지금처럼 10억원을 쓰더라도 지방의원이 돼야겠다고 할정도로 정치需要가 과잉인 현실에서 歲費지급론은 時機尙早라고 말한다。

「윤리강령」을 만든다고 부지런을 떠는 民自党의 대응 역시 믿음을 주지 못하는것 같다。「윤리강령」이 무슨요술지팡이라도 되는듯이 무슨 문제만 터졌다 하면 꺼내들고 나서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정치권은 어떻게 詐欺와 強姦등 파렴치 前科者들을 무더기로 공천했던지부터 되짚어보는 솔직한 대응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은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를「難兄難弟」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해주고 싶다。〈沈良燮·정치부기자〉

74세대 진안타운 즉시입주
분양가격 ※다양한 평수임 (단위 : 만원)
등기면적 | 층 별 | 총분양가 | 계약금 | 융자금 | 실입주금

아파트식 신오빌라 44세대
분양가격 (단위 : 만원)
형 별 | 층 별 | 총분양가 | 계약금 | 융자금 | 실입주금